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2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들은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다음 원고지에 사용된 문장 부호 중 잘못 쓴 것끼리 짝 지은 것은? [1점]

명 칭	부 호	명 칭	부 호
온점	.	반점	,
물음표	?	느낌표	!
큰따옴표	“ ”	작은따옴표	‘ ’

No. 1

토	착	어	종	인	열	목	어	·	어	름	치	·	쉬	리	등	은
천	연	기	념	물	로	지	경	태	있	고	관	상	음	으	로	
인	기	가	늘	다	○	그	런	데	귀	화	어	류	때	문	에	
토	착	어	종	들	이	위	기	를	맞	고	있	는	것	이	다	○
‘	토	착	어	종	의	위	기	!'	라	는	기	사	에	서	한	
생	태	학	자	가	이	런	말	을	했	다						
“	왜	방	치	합	니	까	?	○	불	루	길	은	치	어	(	稚
魚)	를	○	떡	봉	어	는	알	을	,	패	스	는	성			
숙	어	까	지	마	구	잡	아	먹	습	니	다	.	토	착	어	
증	의	찌	가	마	를	지	경	입	니	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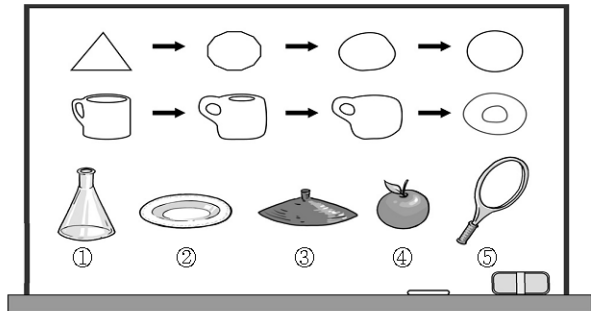
2. (물음) 어머니가 딸에게 덧불일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②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③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④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쉰다고.
 ⑤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3. (물음)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② 무슨 일이든 시기를 놓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③ 세상사는 가깝든 멀든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④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겠어요.

4. (물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5-6】이번에는 수은 오염 문제에 대한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이 대담을 듣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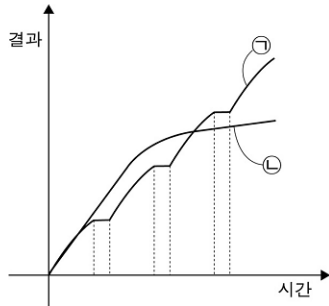
- ① 수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수은은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축적되는가?
 ③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
 ④ 우리나라 상공의 수은 농도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
 ⑤ 수은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6.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보완하고 있다.
 ③ 반대 의견을 소개하며 설명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④ 화제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상대방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듣기·말하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과 ㉡을 대비한, 다음 도표에서 연상되는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간 휴식 시간의 유무와 생산량과의 관계
 ② 급식실 청결도와 학생 이용자 수와의 관계
 ③ 주5일제 시행 여부와 운동량과의 관계
 ④ 아침 식사 여부와 지각 횟수와의 관계
 ⑤ 휴연 여부와 폐암 발생률과의 관계

8. <보기>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이다. 이어서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존경하는 ○○경찰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입니다. 저는 서장님께 우리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달리는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건너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 ①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른 통학 수단을 조사한 통계의 내용
 ②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
 ③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
 ④ 횡단보도가 설치된 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
 ⑤ 아침 등굣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다리를 다친 학생의 사례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글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일보 기사

지난 25일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쇼핑몰 업체 수는 2001년 2,116개에서 작년에는 4,355개로 늘어났고, 거래액도 3조 4,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전자 상거래가 2001년 이후 연평균 30%대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나) 전자 상거래 조정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문 : 전자 상거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 올해 통계는 없지만 작년의 경우 1만 234건으로, 이는 2001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그 중에 실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답 : 그 중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750건으로, 이것 역시 2001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유형
 - ○○시민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물건 구입
 ㉡ 약관에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물건 구입
 ㉢ 구입한 제품에 대한 구매 증빙 자료 분실
 ㉣ 피해 구제 신청 기간을 넘김
 ㉤ 기타

- ① (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가 점점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② (나)의 자료를 통해 전자 상거래의 피해가 급증함을 보여주며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이라는 화제를 부각시킨다.
 ③ (다)의 ㉠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다)의 ㉡을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시 환불, A/S 등의 내용이 기록된 약관 내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⑤ (다)의 자료 내용을 종합하여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소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10 <보기>와 같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I. 처음

: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
자의 현황 _____

㉠ :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II. 중간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
가.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
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선택
2.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및 실태
가. 국내 문화에 대한 부적응
나. 파종한 노동 시간과 저임금——
다. 내국인 직원에 의한 신체 및 정신적 폭력
3.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제도 마련——
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다.

㉔ : 중소기업의 생산직을
피하고 싶다는 예비 직장
인의 직업 선호도 조사 자
료를 제시한다.

㉔ :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②: 'II-2-가'를 고려하여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으로 수정한다.

②: 'II-2-다'를 고려하여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
한 내국인 직원의 의식 개
선 교육 강화'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III. Σ

: 국내 외국인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강조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는 ‘한글맞춤법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기 >

- 종결형은 ‘오로, 연결형은 ‘이요’로 적는다.
→ ㉠ 저기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연필이요.
- ‘ㅂ’불규칙 용언의 경우, 모음이 ‘ㄱ’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에만 ‘와’로 적는다.
→ ㉡ 지난 여름에 만난 그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약속서에 새 바가지가 걸려 있었다.
- 두 말이 어울릴 때에 ‘ㅂ’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면 소리는 대로 적는다.
→ ㉣ 소설을 쓰는 수희는 오늘도 머리카락만 쥐어뜯고 있습니다.
- 어미의 일부인 ‘ㄴ’ 뒤의 음절은, 의문을 나타낼 경우는 된소리로, 그 이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 영미야 미안해, 앞으로 너를 더욱 사랑할게.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 광고문이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 목 :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시는 아버지. 식사 때마다 비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낡아갑니다.

때로는 술을 드시고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 여러분의 꿈과
고민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고 야단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
립니다.

하지만 ()

오는 휴일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꿈은 무엇이고, 지금의 고민은 무엇인지부터 여쭙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보기 >

- 조건 1 : 내용 전개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조건 2 : 아버지와 청소년의 공통점을 드러낼 것.
조건 3 : 의문 형식으로 청소년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

- ① 아버지도 여러분처럼 꿈과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닫힌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 ② 아버지도 여러분처럼 좌절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여러분처럼 아버지도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그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요.
- ⑤ 꿈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 줍니다. 아버지도 옆에 없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 줍니다. 이제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13 <보기>를 평가 항목에 따라 진단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목 : 스타와 대중의 관계	
많은 사람들은 스타를 흠모하고 ㉠ 경원시(敬遠視)한다. 스타들이 대중(大衆)에게 기쁨을 줄 때면, 그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스타 중에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스타는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스타는 자신에게 부여된 혜택은 만끽하면서도 대중에게는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 대중이 등을 돌리면 이미 아니다. 수없이 평멸해 간 스타 군상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 그러나 스타는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중은 스타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한편, 그들이 평생 영원한 스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스타는 인기 지속에 대한 불안감, 대중의 시선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 스트레스가 몹시 심할 것이다. 그러나 스타는 공인(公人)이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가 항목	진단 결과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은 잘 어울리는가?	제목이 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스타와 공인 의식'으로 수정한다.
②	문단에서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완결성을 높인다.
③	문장 간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문맥의 자연스런 흐름을 위해 ㉢을 '따라서'로 고친다.
④	문장의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되지는 않았는가?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 '스타가'를 '아니다' 앞에 넣는다.
⑤	어휘는 정확하게 사용되었는가?	문맥적 의미에 맞게 ㉢을 '선망'으로 수정한다.

14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된 것은?

- ① ☐ 띠다 : 안내원은 늘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 띄다 : 그 여배우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 ② ☐ 메다 :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 매다 : 마을 입구 느티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었다.
- ③ ☐ 색이다 : 부모님 속을 그만 색이면 좋겠다.
☐ 색히다 : 인제가 초야에 묻혀 재주를 색히다니 안라깝다.
- ④ ☐ 묻히다 : 팔고물을 묻힌 떡이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 무치다 : 나물은 정성을 다해 무쳐야 한다.
- ⑤ ☐ 벗어지다 : 구두가 짝 끼어 벗어지지 않는다.
☐ 벗겨지다 :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 앞섰거니 하야
 꼬리 치달리여 세우고,
 종종다리 꺼칠한
 산새 걸음걸이.
-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A]
 갈갈이
 손가락 떠다.
- 멧은 듯
 새삼 돋는 빗빛.
- 붉은 잎잎
 소란히 밟고 간다.

- 정지용, 「비」 -

- (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한낮은 뒤숲에서 매미가 우네.
 그 소리도 가지가지의 매미 울음.
 머언 어린 날은 구름을 보아 마음대로 꽃이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친한 이웃 아이 얼굴이 되기도 하던 것을.
 오늘은 귀를 뜨고 마음을 뜨고, 아, 임의 말소리,
 미더운 발소리, 또는 대님 푸는 소리로부터 어여빠
 기뻐 그려 낼 수 있는 명명(明明)한 명명(明明)한
 매미가 우네. [B]

- 박재삼, 「매미 울음에」 -

- (다) 고향으로 가는 길엔
 하늘이 높고
 흰구름이 피어 올랐다.
 흰구름 그 뒤엔
 남दै이* 푸른 바다가
 넓혔고 [C]
 간월도 건너, 안면도
 소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 보리 누름에
 살랑이는 바람은
 길은 고향 뉘새를 날리고 [D]
 느르실* 논두렁엔
 개구리도 울었다.

서낭당 고개 넘어
배나무결은 오리
갈미* 장터 가는 길엔
흙먼지가 뽕얇게 일었다.

인정이 구수하기 ┌
고구마 같은데 └ [E]
콩서리 모닥불에 입술도 검고 ┌

고향으로 가는 길엔
피어 오른 구름처럼
마음이 부풀었다.

- 성기조, 「고향으로 가는 길」 -

* 소소리 바람 :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
** 남댕이, 느르실, 갈미 : 지명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가), (나), (다) 모두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대조해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에 비해 (나), (다)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 (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 ⑤ (다)에 비해 (가), (나)는 시적 공간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16 <보기>는 (가)를 산문으로 서술한 것이다. (가)의 내용과 달라진 것은?

< 보 기 >

㉠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 빗방울은 여기저기서 서로 다투듯이 쏟아져 내린다. ㉢ 산새는 빗소리에 놀라 날갯짓을 하며 종종걸음으로 비를 피하고 있다. ㉣ 땅에 떨어진 빗물은 여물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다. ㉤ 잠시 주춤했던 빗방울은 다시 붉은 꽃잎에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나)의 '매미 울음'이 수행하는 시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대상
- ② 화자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매개체
- ③ 화자의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④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
- ⑤ 화자의 소망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소재

18 <보기>는 '고향'에 대한 현대 도시인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다)에서 연상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 보 기 >

물음 당신에게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은?

- 대답**
- ㄱ.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삭막한 도시와는 달리 따뜻한 인간미가 숨쉬는 공간
 - ㄴ. 아스팔트, 시멘트 길을 벗어나 흙길을 땀발로 터벅터벅 걸을 수 있는 공간
 - ㄷ.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진 전원적 공간
 - ㄹ. 추억이 어린 곳으로 생각만 해도 기대감으로 늘 설레는 공간
 - ㄹ. 고생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공간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ㄹ

19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 [A]~[E]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시각적 이미지와 의인화의 방법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군.
- ② [B] : 청각적 이미지인 매미 울음소리를 의미를 지닌 말로 표현하고 있군.
- ③ [C] :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군.
- ④ [D] : 시각, 청각, 후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고향의 다양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군.
- ⑤ [E] : 시각적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로 변환한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미지를 참신하게 형상화했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구 온난화가 정말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답변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언젠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한다.

이 질문에 대해 과거 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후 변화가 보통 수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했으며, 그 근거를 빙하기와 간빙기의 관계에서 찾았다. 빙하기 사이에 존재하는 간빙기는 매우 따뜻한 시기였으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간빙기에서 빙하기로의 이동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지금의 지구 기후는 약 2만 년 전 가장 극심했던 마지막 빙하기를 지나 천천히 기온이 오르는 간빙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빙하기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커다란 기후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후가 매우 짧은 시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구는 11만 년

전까지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이미 수십 차례 겪어 왔으며 실제로 약 1만 3천 년 전에는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영거 드라이아스’ 시대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급작스런 기후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우주로  되는 지구의 복사에너지가 흡수되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산업혁명 전에는 280ppm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353ppm으로 증가하였고,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거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간빙기에는 빙하기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평균 100ppm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빙하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가 된다.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수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구의 기후가 급격한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해수의 순환에 따른 열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적도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표층 해류를 통해 북반구로 이동하고, 북쪽의 차가운 바닷물은 심층 해류를 통해 적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융해된 극지방의 얼음물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때 밀도가 작아진 바닷물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며 바닷물의 순환을 막게 된다. 그 결과 북쪽으로의 난류 유입이 멈추게 되고 결국 열의 공급이 막힌 북반구를 중심으로 급격한 빙하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결과는 매우 섬뜩하며, 이는 현실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북대서양의 최근 40여 년간 염분 농도를 조사한 결과 그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미래의 어느 날 지구상에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 기 >				
(㉠) → 지구 온난화 → (㉡) → (㉢) → (㉣) → 빙하기 도래				
	㉠	㉡	㉢	㉣
①	이산화탄소의 증가	빙산의 융해	바닷물 염분 농도의 변화	해수 순환의 멈춤
②	이산화탄소의 증가	바닷물 염분 농도의 변화	빙산의 융해	해수 순환의 멈춤
③	이산화탄소의 증가	바닷물 염분 농도의 변화	해수 순환의 멈춤	빙산의 융해
④	해수 순환의 멈춤	빙산의 융해	바닷물 염분 농도의 변화	이산화탄소의 증가
⑤	해수 순환의 멈춤	이산화탄소의 증가	빙산의 융해	바닷물 염분 농도의 변화

21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 1>에 대해 보인 적절한 반응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1 >

영화 ‘투모로우’에서 기상학자인 잭 홀 박사는 남극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벌이던 중 ‘라센 B’라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국제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하락에 관한 놀라운 내용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얼음이 녹아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재앙이 온다는 것이다.

얼마 후 홀 박사는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슈퍼컴퓨터로 기후 예측 모델을 추정하자 6주 안에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기상 이변이 불어닥칠 것이며 곧 바로 빙하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 보 기 2 >

ㄱ. 과거의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의 예측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할 거야.

ㄷ. 상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재앙은 결국 북반구의 극지방부터 일어날 수 있을 거야.

ㄹ. 홀 박사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는 해류의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는 증거도 포함되었을 거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두꺼운 얼음이 현재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약 20년 후엔 유럽의 암스테르담에서 부산항까지 이어지는 북극권 최단 항로가 개통될 것이다. 그러면 물류 운송비가 대폭 절감되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근거 없이 주장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② 독선적 태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③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23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1점]

- ① 유출(流出) ② 방출(放出) ③ 도출(導出)
 ④ 각출(釀出) ⑤ 표출(表出)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 하면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와 ‘람’으로 떼어서 말하면 ‘사람[人]’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처럼 더 이상 분석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形態素)라고 한다.

‘콩나물밥’이라는 단어는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을까? ‘콩’, ‘나물’, ‘밥’이 각각 의미를 지니므로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 중 ‘나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와 ‘물’로 떼어 놓으면 ‘나물’이 지니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인 것이다. 또한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에서 ‘-는’, ‘-었’, ‘-겠’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이제 형태소를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 (1) 가. 철수는 학교에 간다.
나. 어디에 가니?
다. 철수는 벌써 학교에 갔다.
- (2) 철수가 어디에 가니?

우리는 위의 예문에서 (1)의 밑줄 친 부분에 있는 ‘가-’는 모두 동일한 형태소이고, (2)의 ‘가’는 (1)의 ‘가-’와는 다른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의 ‘가-’와 (2)의 ‘가’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산의 나무가 크다.
- (4) 뜰판의 풀이 파랗다.

(3)의 ‘가’와 (4)의 ‘이’는 모두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같은 자리, 즉 주격 조사의 자리에 분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 형태는 다르더라도 의미가 같고 분포하는 자리가 같을 때, 이를 별개의 형태소가 아닌 동일한 형태소로 본다. 이것을 이형태(異形態)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 가’나 목적격조사 ‘을, 를’,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 -았-’ 등은 비록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 각각이 분포가 같고 서로 같은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한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태에는 위와 같은 것들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가 있다. ㉠ ‘값’은 ‘값이’에서는 /값/으로, ‘값도’에서는 /갑/으로, ‘값만’에서는 /갑/으로 소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값/, /갑/, /갑/을 형태소 ‘값’의 이형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형태소’라는 말에서 형태란 어떤 형태소를 나타내는 소리의 묶음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형태를 왜 인정해야 할까? 그 이유는 형태는 같지 않으나 분포와 의미가 서로 같은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들을 서로 다른 형태소에 포함하는 것보다 한 형태소에 포함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각각 다른 형태소로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많아지게 되고, 사전의 표제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형태들은 되도록 한 형태소 또는 한 낱말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그 쓰임이 다소 달라진 것은 각기 이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24 위 글을 통해 형태소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깨달았어.
- ②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군.
- ③ 단어의 하위 요소가 형태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④ 사전에 실린 표제어는 모두 한 개의 형태소이겠군.
- ⑤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형태소도 존재할 수 있겠군.

25 위 글의 설명 방식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 ㄱ. 예문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ㄴ. 용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ㄷ. 설명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고 있다.
ㄹ. 통계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않-’과 ‘못’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노력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다.
○ 내가 못 간 것은 몸이 아파서이다.

- ① 형태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
- ② 의미와 분포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이형태의 관계가 된다.
- ③ 의미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
- ④ 형태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가 된다.
- ⑤ 형태는 다르지만 분포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다른 형태소가 된다.

27 ㉠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입력 장치는 키보드와 마우스이다.
- ②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눌 수 있다.
- ③ 우리 반에서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2명이다.
- ④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흘러간다.
- ⑤ 김○○ 씨는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부장, 동호회에서 회장으로 불린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술을 다 마신 뒤 헤어지게 되었을 때 여인은 은 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보련사에서 제게 음식을 배부시킬 것입니다. 낭군께서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보련사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었으면 해요. 어떠세요?”

양생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 주발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자식의 대상(大祥)*에 재(齋)를 올려 천도(薦度)*하려고 하여, 수레와 말이 길을 가득 메우고 보련사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어떤 서생이 주발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귀족의 하인이 말하였다.

“아까서 무덤에 묻은 순장물을 벌써 다른 사람이 훔쳐 갔습니다!”

귀족이 말하였다.

“무얼 두고 하는 말이나?”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선비님이 손에 들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귀족은 마침내 말을 서생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서 은 주발을 얻은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여인의 부모가 한참 동안 ㉠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는 오직 딸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왜적이 침입하여 난리치는 때에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네. 난리 통이라 묘지를 정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개령사의 골짜기에 임시로 매장하였지. 그리고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 대상날이 벌써 이르렀기에, 잠시 제수(祭需)를 갖추고 공양의 자리를 열어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그대는 딸아이와의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오게. 부디 조금도 놀라지 말게나!”

말을 마치고 귀족은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자가 몸종을 데리고 나긋나긋한 자태로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만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 여인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 혼자만 눈으로 볼 뿐이었다. 여인은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을 드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을 해보려고 하여, 함께 차와 음식을 틀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할 때 나는 소리와 같았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다가 양생에게 권하여 회장 곁에서 같이 잠을 자도록 하였다. 한밤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다.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을 그쳤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행동이 계율을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

어요. 어려서 <시경>, <서경> 같은 경전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언지는 조금 알지요. 그러나 <시경>의 ‘잔상(囊囊)’에서처럼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여인이 남자에게 정답을 속삭이는 것이 결연적은 일이고, <시경>의 ‘상서(相鼠)’에서 말하였듯이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쑥덤불 속에 거처하여 들뜬에 버려져 있다가 보니, 애육이 한 번 일어나자 끝내 견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만복사에서 복을 빌고 법당에서 향불을 피우고는 일생의 운수가 박하다고 스스로 탄식하였는데요, 거기서 뜻밖에도 ㉡ 삼세(三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몽치머리에 가지나무로 비녀를 삼은 가난한 차림이라도 좋으니 아낙으로서 낭군에게 인생 백 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 빛고 옷을 기우는 부지런한 살림살이를 하여 한평생 지어미로서의 길을 닦으려 했던 것이예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도리가 없어 저승길은 마땅히 가야만 해요. 즐거움이 미처 극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슬픈 이별의 시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중략]

여인의 부모는 이 일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슬픔을 느꼈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꼈다.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 주발은 자네가 맡아 쓰게나. 다만 내 딸자식의 몫으로 전답 서너 이랑과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그걸 신표(信標)로 삼아 내 딸자식을 잊지 맡아 주기 바라네.”

그 다음 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갖추어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은 과연 시체를 임시로 안치한 무덤이었다. 양생은 제물을 차려 놓고 애통해 울면서, 무덤 앞에 종이돈을 불살랐다. 양생은 이렇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 죽은 지 두 돌만에 지내는 제사

** 천도 :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2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②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 ③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서사 구조로 삼고 있다.
- ④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29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감독이 제작진과 배우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이 양생에게 은 주발을 줄 때 울먹이면서 피로워하는 목소리를 내 주세요.
- ② ‘여인’은 귀족 가문의 규수이므로, 기품 있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분장을 해 주세요.
- ③ 양생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는 대목에서는 애절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을 깔아 주세요.
- ④ 식사 장면에서 ‘여인’의 부모는 ‘여인’을 청각적으로만 인지하는 상태로 연기해 주세요.
- ⑤ 하인이 귀족에게 은 주발에 대해 아뢰는 때 양생이 들고 있는 은 주발을 잠시 동안 클로즈업해 주세요.

30 <보기>는 위 글을 참고하여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얼마쯤 지나서 그 여종이 건장한 노복(奴僕) 몇 명을 데리고 와서 하생을 잡아 묶고 말하기를, “이것은 아가씨 무덤에 순장(殉葬)했던 물건이다. 너는 묘 도둑이로구나.” 하였다. 하생은 여인의 부탁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은지라고 개를 숙이고 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보는 자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그 집으로 끌고 가서 하생을 뜰아래에 묶어놓았다. 시중이 오레(烏几)*에 기대어 청사에 앉아 있고 자리 뒤에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시녀들이 수십 명 둘러 모여 있는데, 서로 보려고 밀치면서 말하기를, “생긴 것은 유자(儒者)처럼 생겼는데 행실은 도적이구먼.” 하였다.

시중이 금척을 가져다가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과연 내 딸의 무덤에 순장했던 금척이다.” 하였다. [중략]

시중이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이상히 생각하며 파보았다.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 있는 것과 같았고 가슴에는 파스한 기운이 조금 있었다. 유모(乳母) 할미를 시켜 싸안고 수레를 태워 몰아왔다.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서 요동되지 않게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 바야흐로 깨어났다. 부모를 보고 가늘게 흐느끼더니,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부모가 묻기를 “네가 죽은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꿈인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며 수줍어하였다.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토소 말을 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 중에서 —

* 오레 : 검은 양각죽으로 만든, 몸을 뒤로 기대는 방석

- ① 위 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는다.
- ② 위 글의 여인은 저승으로 가지만, <보기>의 여인은 삶을 이 어간다.
- ③ 위 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고초를 겪는다.
- ④ 위 글과 <보기>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인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 소재가 있다.
- ⑤ 위 글에서는 여인이 죽은 이유가 나타나 있으나,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31 ㉠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반신반의(半信半疑)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일희일비(一喜一悲)
- ⑤ 천붕지붕(天崩之痛)

32 ㉡의 상황에서 여인이 불렀을 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저승길이 촉박하여 애처롭게 떠난다오,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옵소서,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꼭 지우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 ② 등불엔 빛이 없고 밤은 또한 기나긴데
북두성 기울고 달도 반쯤 비껴있구나,
쓸쓸한 나의 침소 뒤라서 찾아오리,
푸른 적삼 구겨지고 귀밑머리 형용어졌네.
- ③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눈물진 이 몸을 위로할 이 누구던가?
즐겁구나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쌔이고 쌔인 한을 후련히 가져주네.
- ④ 푸른 산 심돌 위에 높이 솟은 다락 하나
연리지(連理枝)에 열린 꽃은 해마다 봄건마는
어이타 인생 백 년 저 꽃과 같지 않아
한 많은 이 청춘은 눈물만 고이노네.
- ⑤ 매실이 떨어지기 전 오신다던 약속이 어긋났구나,
봄바람이 건듯 부니 사랑은 지나갔네,
배갯머리 눈물 자국 얼마나 적셨던가,
무심한 산비가 내려 배꽃만이 떨어지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각(知覺)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눈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나 눈을 통해 들어온 자극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특정한 자극만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자극]에 자신의 동기·[경험]·기대와 같은 내적 요인을 상호 작용시키면서 [지각]하기 때문이다. 자극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지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자극이 지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는 ‘전경과 배경 분리의 원리’와 ‘지각 조직화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나) 수업을 듣는 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학생의 눈에는 앞에 앉아 있는 친구나 벽, 그리고 선생님 등이 모두 자극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모든 자극을 지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집중하지 못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수업에 참여하려면, 즉 자극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주위의 다른 사물과 분리해야 한다. 여기서 ‘선생님’처럼 집중되는 자극을 ‘전경(前景)’이라 하고 그 외의 자극을 ‘배경(背景)’이라 한다면, 전경과 배경이 분리되어야만 자극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전경이 대개 작고 응집적이라면, 배경은 좀 더 크고 흐트러져 있어 응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전경과 배경의 속성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경계가 뚜렷해져 전경과 배경이 분리된다. 이렇게 전경과 배경을 분리해서 자극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전경과 배경 분리의 원리’라 한다.

(다) 사물에 대한 지각은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극들은 응집성 있게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런 속성 때문에 같은 자극들도 어떻게 체계화되느냐에 따라 사물의 형태가 다르게 보인다.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자극들을 체계화시키는 요소로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완결성 등을 찾아냈는데, 이를 지각 조직화의 원리라고 한다. 인간은 이 원리로 대상을 하나의 의미 있는 모습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무의식적이고도 순간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고도의 해석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편안함을 깨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건축물에서 긴장감이 느껴질 때는 상식을 깬 만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건축물들이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그럴 만한 사회적 동기가 이면에 깔려 있다.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에는 열정적인 종교적 의지가 사회적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 시대에는 로마를 기독교의 중심지로 복원하려는 노력 아래 많은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 또한 가톨릭의 종교적 열망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이러한 열망을 자극할 만한 극적인 요소가 갖추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교회가 들어서는 부지가 오래된 시가 내 좁은 가로변이었다. 이처럼 건물 앞 도로 폭이 좁은 상황에서 건물에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와 양각*의 조각에서 얻어지는 착시 현상을 탐구하게 되었다. 건축물이 편안하게 느껴지려면 건축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보는 사람의 시야에서 적절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편안한 느낌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지어진 대표적 건축물이 프란체스코 보로미니의 성 카를로 교회이다. 이 교회의 앞길은 폭이 좁아 길에서 이 건물의 꼭대기를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많이 들어 올려야 했고, 건물의 전체 형태나 외부 장식물도 착시 현상을 거쳐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올려다 본 성 카를로 교회는 마치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상승하게 해 주었다.

1960~1980년대의 서양 현대 건축물 중에는 전통의 권위에 반하는 집단적 에너지가 사회적 동기로 작용한 것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권위만을 내세우던 고리타분한 전통 건축이 안정적 느낌을 주는 수평선에 안주한 것과는 달리, 반발의 상징으로 사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수평선과 수직선을 볼 때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낀다. 그런데 수평선과 수직선을 가로지르는 사선은 보는 사람에게 평온함을 ㉠ 깨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권터 도메니히의 ‘스톤 하우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건물 외부로 노출시킨 계단을 벽체에 어긋나게 사선 방향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계단은 항상 곧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이처럼 건축에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사회적 동기가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따라서 건축을 감상할 때는 무엇보다 건축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이란 ‘건물이라는 단순한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 양각(仰角) : 올려다 본 각

38. 위 글이 신문에 교양 기사로 실렸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회적 동기를 담고 있는 건축
 - 긴장감 넘치는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 ② 바로크 교회 건축 양식의 특징
 - 높은 양각에서 얻어지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 ③ 고리타분한 권위에 도전한 건축들
 - 상식과 고정 관념을 깨뜨려
- ④ 건축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 당대의 종교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 ⑤ 건축에 시도된 새로운 실험 정신
 - 낡은 전통을 깨고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 내

39.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프란체스코 보로미니의
성 카를로 교회

- ① 건물을 가까이에서 우러러 보게 하여 종교적 경외감이 저절로 들게 하였군.
- ② 벽에 새겨진 인물상도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신앙적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겠군.
- ③ 이 건물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사람을 압도하는 극적 긴장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 ④ 두 개 층에 걸쳐 위아래로 반복되는 네 개의 기둥 때문에 건물이 훨씬 높아 보이는군.
- ⑤ 만일 도로 폭이 좁지 않았다면 사선을 이용해 긴장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40.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이 지어지는 주변 여건도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어.
- ② 건축가는 건축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거야.
- ③ 건축물에서 강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는 집단화된 사회적 동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 ④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축물은 보기에 편하지 않아서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데도 많이 불편할 거야.
- ⑤ 건축이 적절한 범위의 공간 크기와 시선 각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고정 관념일 수 있어.

41 ㉠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 ② 기철이는 분위기를 깨는 말을 자주 한다.
- ③ 술을 깨는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 ④ 자주 약속을 깨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 ⑤ 이철수 선수가 마라톤에서 세계 기록을 깨는 위업을 달성했다.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뭘 하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고 영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별을?” “애들이 단체 행동에서 빠지려구 합니다.” “단체 행동이라니…….” “애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언제 그 놀이를 해보자구 여럿이서 의논을 했었나요?” 선생님의 한결같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대들 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아뇨, 하나마나죠.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럿이 하는 일에 마음이 모두 맞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급장은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불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겠다는 평계로 제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중하 은수 그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보려 했던 것이다. 그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 쑥떡을 먹으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이 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이 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풀릴 것, 임종하’라고 써어 있고 (㉡) 책갈피에 끼워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 애가 달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얼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날 몇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중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겹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져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중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 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따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 버려.” “이 새끼가…… 맞아 볼래?” 중하가 내 먹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빨아 버려,

빨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 기가 죽어 지내던 장판석이도 중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 은수와 중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았구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 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샛노랗게 질려 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거나?”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되라.” 나는 중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중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입마.” 중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중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나의 틀쫄던 수치감은 그때에 딱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름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나는 노깡*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구 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지. 그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 악몽의 비밀을 말쑤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다. “애써 보지도 았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고, 노깡 속에 다시 한 번 들어갔더랬지. 나는 그 속의 뼈다귀가 개뼈, 소뼈, 사람 뼈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무렇지 않게 ㉥ 길을 들었던 것이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 노깡 : 시멘트나 흙을 구워 만든 둥근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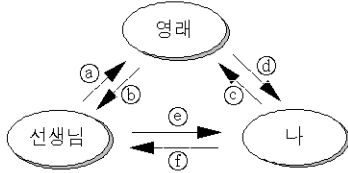
42 <보기>를 고려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소설은 1950년대 어느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비민주적인 시대 상황을 풍자하면서 이를 통해 민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피지배자들의 힘이 결집되면 지배자들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 ② 피지배자들은 다수이면서 약하지만 계기가 주어지면 강해질 수 있다.
- ③ 피지배자들은 지배 집단의 횡포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 ④ 피지배자들은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성향이 짙다.
- ⑤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에게 대항하는 당당한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43 위 글에 드러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 파악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교사의 입장에서 깨우침을 주려 하고 있다.
- ② ㉡ : 자치회 때 생긴 반감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 ③ ㉢, ㉣ : 학급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 ④ ㉤ :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⑤ ㉦ : 호감을 갖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44 ㉡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선생님의 예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 ② 선생님의 비리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 ③ 선생님을 모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 ④ '나'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 ⑤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45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욕하는 몸동작을 하며
- ② ㉡ : 들뜬 마음으로
- ③ ㉢ : 대들지 못하던
- ④ ㉣ : 한꺼번에 덩벼들어 때려서
- ⑤ ㉤ : 익숙해진

46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속어의 사용을 통해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짧은 호흡의 문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군.
- ③ 작품 밖의 관찰자가 작중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군.
- ④ 외양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과거-미래-현재'의 장면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군.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에서 소득의 분배는 각 생산 요소가 부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지니 계수' 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준 비율을 말한다.

다. 이 값은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낮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 계층부터 고소득 계층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 비율을, 세로축에는 해당 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한국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표가 지니 계수이다. 위의 그림에서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지니 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므로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즉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뜻하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제도와 정부 지출을 통한 두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 제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와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제 등이 있다. 한편,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사회 복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복지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계 보조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 제도 혹은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려, 근본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이 커지는 복지병(福祉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높은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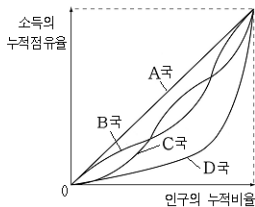
- ①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
- ②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 ③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
- ④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⑤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양상

4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는 (㉡)을/를 토대로 산출된다.

- | | |
|------------|----------|
| ㉠ | ㉡ |
| ① 10분위 분배율 | 로렌츠 곡선 |
| ② 10분위 분배율 | 지니 계수 |
| ③ 로렌츠 곡선 | 지니 계수 |
| ④ 지니 계수 | 로렌츠 곡선 |
| ⑤ 지니 계수 | 10분위 분배율 |

49 위 글을 바탕으로 아래 도표를 해석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소득을 얻고 있겠군.
- ② B국은 C국보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겠군.
- ③ C국의 지니 계수는 D국의 지니 계수보다 작겠군.
- ④ D국의 10분위 분배율은 B국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군.
- ⑤ D국은 네 나라 중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군.

50 위 글을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② 구직자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이 취업할 때까지 가정의 생계를 보장한다.
- ③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율을 달리하여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 ④ 정부 산하 기관에 취업 알선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예비 직장인을 실습 사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경험을 쌓게 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51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본래 산수를 좋아하여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속리산 등의 절정에 모두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 높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으며, 거기서 본 하늘과 땅의 광대함을 알았고, 또 천 길 만 길 솟아 있는 기암괴석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자란 소나무, 잣나무들을 보았으며 구름이 둘러싼 사이로 맑은 시내와 깨끗한 바위들, 깊숙한 숲들이 속세의 잡념을 씻어주고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특히 좋아한다. 그리하여 가끔씩 그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고집스러운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리하여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조금은 위토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곧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경치의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늘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다.

[A] 나에게는 종남(終南)에 별장이 하나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문 뒤에 연못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피이하게 생긴 물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틈 사이사이에 소나무나 회양목 등을 왜소하게 생긴 뽕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그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 이도 더러 있었지만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작지만 큰 산을 본땀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중략]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그리하여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鄭虔)이나 왕유(王維)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그런데 ㉡ 이곳에서 나는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피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반짝없이 바라보아도 싫증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요한 밤, 잠이 오지 않을 때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싸아 하고 쏟아지는 ㉢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의 집은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및 아름다운 색깔 등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말미암아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 들은 모두를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石假山瀑布記)」—

(나)

秋・3

백운(白雲)이 내려나고 나모 국터 호느킨다 / 돌 드라라 돌 드라라 / 밀름의 서호(西湖) 오 혈름*의 동호(東湖) 가자 / 지국충(至囑) 지국충(至囑) 어스와(於思臥) / ㉔ 백빈홍료(白蘋紅蓼)*는 곳마다 경(景)이로다

冬・8

름 ㄱ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혀놓고 / 빙 밍여라 빙 밍여라 / 머흔 구름* 흔(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 지국충(至囑) 지국충(至囑) 어스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단원(塵喧)*을 막노도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중에서 —

* 혈름 : 샘물 ** 백빈홍료(白蘋紅蓼) : 흰 마름꽃과 붉은 여뀌꽃
*** 머흔 구름 : 험한 구름 **** 염(厭)티 : 싫어하지
***** 단원(塵喧) : 속세의 시끄러움

(다) 산사람은 김승을 좋아하여 뽕나무 활로 사냥을 즐기나
난 홀로 낚시 즐기는 남녘 늙은이로
가늘고 가는 명주실로 작은 그물 만들고
맑은 연못에서 옥비늘 반짝이는 물고기를 잡노라
민첩한 칼놀림에 ㉕ 물소리도 맑아라
돌 위에 앉아 대하는 건 청산의 경치
전날 서울에서 물고기를 샀을 때
그때의 색은 냄새는 지금도 눈살 찌푸리게 한다오
— 박순, 「어부사(漁父辭)」—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가), (나), (다) 모두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나)와 달리 (다)는 자연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 ③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인공적 조형물도 소재로 다루고 있다.
- ⑤ (다)와 달리 (가), (나)는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52 (가)의 [A]와 [B]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 것은?

- ① [A]에는 [B]에 드러난 '나'의 행위에 대한 동기가 제시된 것 같다.
- ②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A]에서는 긍정적이지만 [B]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다.
- ③ [A]에 나타난 내적 갈등이 [B]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어.
- ④ [A]에 드러난 자연에 대한 분석적 태도가 [B]에서는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어.
- ⑤ [B]에 드러난 '나'의 행위는 [A]에 드러난 '나'의 성향과 서로 어긋나는 것 같다.

53 (나)에서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칩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기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① 백운(白雲) ② 나모 ③ 동호(東湖)
- ④ 외로운 술 ⑤ 파랑성(波浪聲)

54 <보기 1>은 (다)에 대한 해설 중 일부이다.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1 >

이 작품은 작가가 64세인 1586년에 서울에서의 영의정직을 사직하고 서울의 북쪽 지방인 지금의 포천 지방에서 소일할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작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작가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서 대비 관계를 이루는 시어의 짝을 찾아볼 수 있다.

< 보 기 2 >

가. 돌 : 청산 나. 낚시 : 사냥
다. 색은 냄새 : 옥비늘 라. 명주실 : 맑은 연못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 ④ 나, 다 ⑤ 다, 라

55 (나)의 '秋・3'이 <보기>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이라 가정할 때,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을 법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히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이현보, 「어부가 4」—

- ① 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의 기법을 활용하자.
- ② 후렴구를 첨가하여 음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자.
- ③ 자연을 대하는 흥취는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 ④ 구름이 일어나는 광경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발상은 그대로 유지하자.
- ⑤ 원시와는 달리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하여 표현하면 좋겠어.

56 소재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할 때, ㉠~㉥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모콘은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의 준말로 원격 제어 장치를 뜻하며, 원격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원격 조작이라고 한다. 이때, 텔레비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장치는 제어가 용이하지만, 로봇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기계를 먼 거리에서 뜻대로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원격 조작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원격 조작되는 로봇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환경,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나 깊은 바닷속, 우주 공간 또는 사람의 혈관 안 등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 중 하나는 바닷속이었다. 1985년에는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를 73년 만에 북대서양에서 찾아낸 것도 해저 탐사 로봇이다. 이러한 원격 로봇은 해저 케이블 매설에서부터 대륙붕 탐사, 해저 광물의 채취, 해저 지도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원격 조작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센서, 원격 도구, 표시 장치, 제어 장치, 통신 수단'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센서'는 원격 로봇의 눈에, '원격 도구'는 원격 로봇의 손발에 해당되며 '표시 장치' 및 '제어 장치'는 원격 로봇을 조작하는 사람의 눈과 머리인 셈이다. 이때 로봇과 사람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활동 지시를 내리는 등 정보를 교환한다. 원격 로봇이 '센서'로 작업 상황과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조작실로 보내면, '표시 장치'의 화면에 그대로 재현된다. 조작실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격 로봇이 취할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제어 장치', 즉 컴퓨터를 통해 하달된 지시는 '통신 수단'을 통해 로봇에 전달된다. 그러면 원격 로봇은 조작자의 지시대로 '원격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 조작 시스템 운용의 성패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와 분량, 정확성 등 정보가 가진 특성에 달려 있다. 조작실의 조작자가 작업 환경에 대하여 생생하게 느낄수록 그만큼 더 정확하게 원격 로봇을 제어할 수 있으며, 원격 로봇이 조작자의 판단이나 지시를 생생하게 전달받을수록 그만큼 더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 조작 시스템이 완벽에 가까워지면 조작자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즉 원격 로봇이 어떤 물체를 다루고 있을 때, 조작자는 자신이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 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원격 존재 기술'은 인간이 원격 조작 시스템을 통해 조작자와 거의 동일한 가상의 존재를 구현하는 기술로, 조작자와 원격 로봇 사이의 완벽한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격 존재 기술'에 의해 구현된 가상의 존재를 '원격 존재'라고 한다. 곧 원격 존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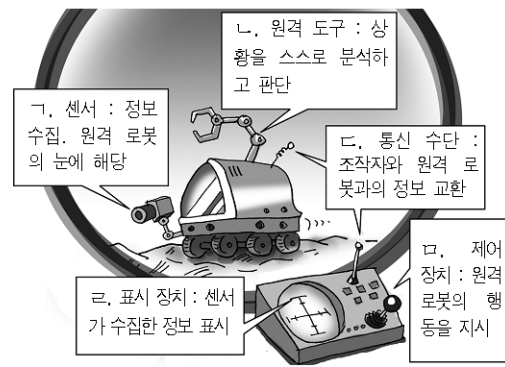
원격 존재는 1979년 마빈 민스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미국의 스리마일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 장치 파열로 핵연료가 누출된 사고가 났을 때, 민스키는 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원격 존재 기술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 후 원격 존재 기술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현재의 원격 존재 기술은 시각 위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 오감을 완벽하게 갖춘 원격 존재 기술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본격화되면 인류는 현재와는 다른 ㉠ 새로운 형태의 생활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된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우리는 원격 제어 장치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 ② 원격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
- ③ 원격 존재 기술 개발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안되었다.
- ④ 원격 조작 시스템 운용의 성패는 제어 장치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
- ⑤ 원격 존재 기술은 공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58. 다음은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을 통제하는 기계 장치이다.
- ②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 ③ 신체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 ④ 다른 곳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자신이다.
- ⑤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인간 지혜의 총아이다.

60. 위 글을 바탕으로 ㉠의 모습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침대에 누운 채 지중해로 여행을 가서 일광욕을 즐기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②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주문할 음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거실에 앉아서 TV쇼평을 매장에 진열된 의류의 착용감을 느껴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기상 시간에 맞춰 깨워주고 출근한 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청소도 하는 로봇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 ⑤ 판문점에 직접 가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서로의 체운을 느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